강연초록 신국제질서의 출현과 동북아 세력 재편

탈냉전으로 변화된 남북관계 조명

소련과 동구 공산주의가 해체된지 4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이미 수없이 다루어졌던 신국제질서의 논의란 이미 식상해져버린 주제이지만 통일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본보에서는 나라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전환기 교양강좌'중 우리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권만학 교수의 '신국제질서의 출현과 동북아 세력재편'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註〉

남북한은 작년 2월 19일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켰다. 이것은 1972년 합의된 이래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7·4 남북 공동성명'과는 달리 유엔 문서로 회람되어 준국제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관계는 본명 전환기에 접어든 것이다.

분단이 그러했듯 최근의 남북한 관계의 변화도 탈냉전이라는 국제체제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하는 권만학 교수는 먼저 탈냉전에 대해 설명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세계질서'라는 용어는 91년 걸프전이 끝난 후 부시 전 미대통령이 언급하면서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신질서 논의는 시기적으로 걸프전 후에 본격화됐지만 냉전질서의 붕괴는 부엌모다도 공산주의의 몰락과 맞물려 있다. 1985년 이래 시작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의 평화정책은 동서구 관계에서 탈 냉전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때의 탈냉전이 '정책적 차원'이라면 89년 말부터 본격화된 소연방과 동구 공산체제의 붕괴는 탈냉전을 '구조적'차원으로 변환시켰다.

세계적 규모로 진행돼온 냉전은 89년 몰타에서 미소에 의해 그리고 90년 파리에서 동·서구에 의해 선언적으로 종식되었다. '소련위협'을 안보정책의 제1전제로 삼았던 미국과 일본이 이제는 전환기의 구소련을 돕기로 결정했으며, 과거 거의 모든 사안에서 이견을 보이던 중국과 소련은 유엔 안보리에서 결프전에 대한 서방의 대응에 협조했다. 냉전과 '신냉전' 모두 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져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탈냉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첫째는 공산체제의 역사적 한계이다. 맑스의 이론과는 달리 실제 역사상에 있었던 사회주의혁명은 자본주의의 후진국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과리 꼬뮨이나 러시아 혁명에서 보듯 경제단계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정치적'혁명이었다. 더군다나 그들은 역사상 가장 폭발적 생산력을 갖춘 자본주의에 포위되어 있었다.

20세기의 거대한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것을 공산주의의 '역사적 종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산주의가 생산력 경쟁에서 패배한 것이지 자본주의가 인도주의나 자유주의로서 승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말 그대로 20세기에서의 공산주의 몰락이다.

둘째는 냉전의 양 맹주 미국, 소련이 냉전 수행능력의 한계에 부딪쳤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미 60년대 말 베트남 전쟁때부터 냉전비용 전담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해서 71년에는 20세기 들어 최초의 무역적자를 보았다. 신보수주의를 표방한 레이건은 우주의 군비경쟁을 확대하는 '전략방위구상'등 신군비 경쟁정책을 통해 '쇠대한 미국' 건설을 시도한다. 하지만 레이건의 미국 재건 전략은 미국을 냉전의 승리자로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동시에 그러한 승리의 기초를 이부딛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크게 잠식했다. 1914년이래 채권국의 위치를 지켜왔던 미국이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한 것이다. 미국에의 도전은 서베이아에서가 아니라 서독, 일본등 자본주의 경쟁국들로부터 오고 있었던 것을 깨달아야 했다. 미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는 상승하고 있는 잠재적 패권국 일본등에 의해 벅워지고 있었다. 결국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협정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또는 신자유무역주의 정책과 방위분담 압력을 가일층 증대시키게 된다.

뿐이라고 권교수는 해석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견뎌가면서도 개발하려는 핵은 하나의 협상카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핵의 의미라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더 막강한 폴리적, 정치적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아마도 그 싸게 먹히면서도 막강하게 발휘되는 힘에 매력을 느꼈을 지 모른다. 지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실사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한 지라도 대외적으로 기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무시하고 개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덥했다.

권교수는 또한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미국보단 중국의 신호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자립,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물망 안에 들어 있지 않고 그래서 미국은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실제로 북한에 압력을 가한 수가 없다. 하지만 중국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북한에 대한 정보가 신속, 정확할 뿐만 아니라, 핵개발에 대해서도 경제 세재 등으로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기업들이 구공산 저개발국들로 적극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 대해 권교수는 지금은 오히려 엔고를 틈타서 일본으로 진출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끝을 맺었다.

〈임정미 記者〉

'20C 의 공산주의 몰락' 신국제질서 개편촉진
북한 핵개발 국제적지위 획득위한 협상카드

연구소탐방 — 비교문화연구소

동·서양 문화 비교 통해 새로운 문화창조

비교문화연구소가 동서양의 문화비교를 통해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9월9일 본교부설연구소로 발족하였다.

현재 외국어대학 학장실에 현판이 붙어있는 이 연구소는 2년전부터 외국어대학 교수들에 의해 계획되어왔으며, 동서양의 어학과 문학을 위시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를 연구, 비교 검토함으로써 보다 나은 문화창조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소의 구성원은 외대학장인 배기열(외대·불문)교수를 소장으로 하고, 간사에 김언종(외대·중문)교수, 감사에 원용순(외대·영문)교수, 운영위원으로 허종(외대·영문)교수외에 4명의 교수가 있으며 외국어대학 전 교수가 연구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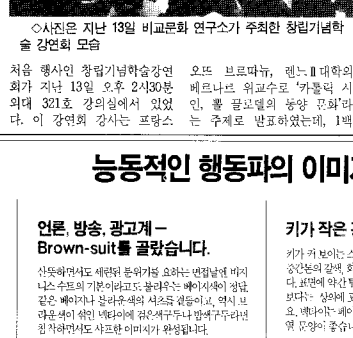
현재 계획 중인 사업으로 먼저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인데 내년 말부터 '비교문화연구'가 외대에서 발간되어 오던 '외대어문논총'과 번갈아가며 격년제로 발간된다. 또 매년 봄·가을 정기적으로 연구발표회,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내년 봄에는 현재 외국어대학에 있는 6개과와 관련된 6개국(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스페인, 러시아)의 어학 및 문학 비교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6개국에 있는 여러 대학과의 자료교류도 계획하고 있다. 또, 교내외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의 수행과 외국기관과의 협동연구등 연구소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여러사업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연구소가 주최하는 처음 행사인 창립기념학술강연회가 지난 13일 오후 2시30분 의대 321호 강의실에서 있었다. 이 강연회 강사는 프랑스 오뜬 브르따뉴, 렌느Ⅱ대학의 베르나르 위교수로 '카톨릭 시인, 콜 클로델의 동양 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1백50여명의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제 연구소가 발족한지 채 2개월도 안돼 이렇다하게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연구는 없지만, 개별 연구실도 없이 외대학장실을 겸용하며 전임 연구원과 연구비 프로즈 없는 상태에서 연구원님의 희미로 연구소 운영을 해 나가려 많은 교수들이 연구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소 간사인 김언종 교수는 "비교문화연구소는 전통문화에서 현대 문명에 적합한 문화를 응용하고, 각국 문화의 특성을 비교하여 각 문화에서 공통된 장점을 발양시키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연구자료를 수집중이고, 관심있는 모든 사람의 의견과 격려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교문화연구소가 앞으로 본교 부설연구소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학교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대하다.

〈송현주 記者〉



◇사진은 지난 13일 비교문화 연구소가 주최한 창립기념학술 강연회 모습

강단시론

박 명 광

〈정경대교수·경제학〉

자본주의는 건강한가?

지금 우리는 예보없이 닥쳐온 태풍에 휘말린것처럼 기존의 국제정치 질서가 그 근저로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

소련이 동서대결구도의 맹주자리에서 밀려나고 독일이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여타 동유럽국가들은 사회주의를 속속 이탈하고 있는가하면 심지어 중국마저 시장경제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세계질서의 급격한 변화, 특히 사회주의경제권의 갑작스럽고도 전면적인 퇴조현상을 바라보면서 때늦게(?)제기하고 싶은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사실 사회주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념도 없었다. 제도로부터의 착취가 배제된 가운데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그리하여 만민평등의 무계급사회를 이상적 목표로 추구한다는 그 단순하고도 논리적인 매력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목숨마저 초개같이 버리고 사회주의혁명운동에 가담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제시했던 이상사회는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 74년간의 실험실습을 거친 결과 사회주의는 사회가 필요로하는 충분한 생산력을 갖추는데 실패했으며 따라서 필요에 따라 베분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사회주의는 풍요와 평등이라는 두가지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퇴장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진단이다.

이제 지구상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경제제도는 유일하게 자본주의밖에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택, 시행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과연 건강하며 안전한 제도인가, 그러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들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 또 하나의 질문으로 제기된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은 역시 대량생산에 의한 주기적인 경기변동, 이에따른 대량실업의 우려, 경제력의 집중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환경파괴등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은 거시경제정책의 탄력적인 운용과 광범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회세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어느정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을 포함하여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최대의 난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발전을 정체시키는 가치체계의 변질 현상이다.

자본주의경제가 어느정도 발전단계에 이르면 더이상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치관이 만드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만능, 향락풍조의 만연, 근로정신의 해이, 문제해결의욕의 저하, 기업가정신의 쇠퇴현상이다.

이와같은 사회적 병리현상이 확산되고 정착될 때 자본주의는 더 이상 발전할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부단한 자기수정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구체적 대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행동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부단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평등은 사회적 소외를 확산시키고 그것은 근로의욕의 저하, 체제에 대한 회의와 부정의식을 확산시켜 자본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서·번즈가 지적한 대로 낙관적 경제관이 정착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국가경제의 장래에 대해서 잘될 것으로 믿는 신념이 확고해야만 국민경제에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가 자취를 감춘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전체에 천직사상과 소명의식이 팽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종간의 임금격차나 지역차별등이 제거되어야 한다.

넷째, 프로기질, 장인정신, 전문가우대풍조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경제가 생산력증대와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물질적 번영이나 육체노동을 천시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부자'는 다 '도둑놈'으로 인식되고 육체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천대 받는 세상에서 생산력증대가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몇가지 자본주의 생존전략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사회란 역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는 유기적 구성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정신, 가치관이 있기 마련이며 그것이 곧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개혁운동이 한창이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회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숫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잇따른 대형참사와 나빠지는 경제사정 때문만은 아닌 듯 싶다.

탈이데올로기시대에서 새로 정립되어야 할 우리의 위상,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 속에 조용히 착근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지극히 필요한 때이다.

능동적인 행동파의 이미지로 변신하십시오 — 빌트모아

DRESS FOR SUCCESS

이렇게 입으면 성공한다!

면접날, 친구들을 만나보면 여느때와는 다른 얼굴과 어색한 복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발랄하고 자신있는 용모를 연출할 수있을까요?

당당한 남자의 모습으로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세…

자, 활기차고 능동적인 행동파의 이미지로 변신하십시오. 남자들의 정장이란, 대개 색이 어둡고 디자인이 단조롭기에 누구나 비슷해보이기도 쉽지만, 조금만 센스를 발휘해면 달라집니다. 특히 면접날엔 자기가 선택한 직장의 분위기를 잘 파악한 후 수트를 선택하여 와이시츠와 넥타이로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언론, 방송, 광고계 — Brown-suit를 골랐습니다.

산뜻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요하는 면접날엔 비지니스 수트의 기본이라고도 불리우는 베이지색이 정답 같은 베이지나 블라우스색의 서츠를 곁들이고, 역시 브라운색이 섞인 넥타이에 검은색구두나 밤색구두라면 침착하면서도 사프한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금융계 — Navy Suit를 골랐습니다.

깨끗한 첫 인상을 주는 Navy Color수트. 면접을 위해선 2개는 형의 심플수트에 해당되는 칼라의 흰셔츠, 그리고 레지멘탈 스트라이프의 넥타이가 잘어울립니다. 검은 구두나 밤색구두에 화려, 검은색 감색의 양말도 마무리하세요.

대기업 — Grey-Suit를 골랐습니다.

회색은 다른 색과의 조화가 쉽고, 특히 조이 를 곁들인 소리피스 스타일이 돋보이는 아이템이시면, 면접날엔 단순 단정한 코디네이트를 권해드립니다. 화려하나 하늘색 와이셔츠에, 자주색 바탕의 흰 스트라이프 넥타이, 혹은 은은한 색조의 페이즐리 넥타이로 준비하세요.

키가 작은 경우엔

키가 커 보이는 스트라이프나 베이지나 은회색, 회색, 중간톤의 갈색, 회색 등 엷은 색이 제일을 보완해 줍니다. 표면에 약간 털이 있는 부드러운 소재를 감아 하의 스타일 — 상에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은 좋지 않으세요. 넥타이는 베이즈리, 스트라이프나 반복되는 잔 패턴 문양이 좋습니다.

마른 경우엔

부드러운 소재와 강한 무늬의 조화가 풍부감을 줍니다. 색상은 밝은 갈색이나 베이지, 밝은 청색, 밝은 회색이 적합하고 선명한 체크보다는 굵은 줄무늬나 큰 페즐리 같은 분명한 무늬가 좋습니다. 넥타이는 파랗 한 색상의 큰 페이즐리나 분명 프린트 무늬로 배합을 잘게 하여 매어 보세요.

체격이 큰 경우엔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짙은 색상의 풍성한 옷을 여유있게 입는 것을 선정 쓰세요.

특히 상반신이 굵은 경우엔 하의 보다 짙은 색상의 상의로 결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고 작은 체크나 물 방울 프린트 셔츠, 비슷 다운셔츠에 작은 물방울이나 페이즐리 넥타이로 마무리하세요.

배가 나온 경우엔

정상적인 벨트 위치를 피해 결점을 보완하도록 합니다. 정상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리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벨트 위치를 내리면 활동적인 이미지가 생기면 산만해 보입니다. 어두운 색상의 더블 브레스트나 쓰리버튼 싱글수트를 제외 무늬가 이상적입니다.

어깨가 좁은 경우엔

어깨가 좁아 당당함을 잃기쉬운 체형엔 밝은색계열의 옷이 상반신을 넓어 보이게 도와줍니다. 어깨 패드로 보정해 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며, V존을 넓게 한 싱글 브레이사넬의 아이템수트가 잘 어울립니다.

액세서리

구두는 다자인보다는 신고 있기 편한것이 현명하며, 색상은 검정색과 갈색이 기본색입니다. 양말은 옷과 잘 맞는 짙갈색 고르도록 하며, 휘 양말은 피해 신사복의 색상과 짙맞는 천한 색의 부츠나 무나는 매치시키도록 신경쓰세요. 그리고 검은색이나 농색계열도 드레이션 하십시요.

신사의 정장은 일정한 형식을 따른 마음과 캐릭터의 표현입니다.

— J. P. Foster

행동파 활동정장

BILTMORE

■빌트모아 취급매장(서울 강인지역)

백화점 ● 롯데 본점 ☎(753)2500 ● 롯데 영등포점 ☎(633)3535-8444 ● 동방프라자 ☎(735-1234 ● 뉴데파트(시티) ☎(753-1162 ● 뉴데파트 ☎(412-5202 ● 뉴디(상)(남) ☎(670-8453 ● 신세계 ☎(753-8855-8180 ● 신세계 영등포 ☎(636-1234 ● 동화 동화(03)(527-1474 ● 세내화 ☎(421-3987 ● 한국백화점 ☎(565-5621 ● 현대백화점 CITY ☎(02)(543-8170 ● 롯데 롯데